그 사람 지금은

(41) '5월의 사제' 김성용 신부 〈하〉

"국민 총칼로 죽인 전두환…" 거침없는 강론

"우리가 폭도면 국민을 총칼로 죽이고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이는 죄목이 무엇인가."

80년 5·18관련자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겁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다. 당시 옆에 섰던 이기홍 변호사가 옆구리를 찌르면 제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80년 5월 당시 김성용 신부는 미사 강론 때나 계엄군과 협상시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엄군에 대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1980년 5월 22일 광주시내에서 공수부대가 쫓겨난 이후 시민수습대책위가 구성됐다.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젊은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며 수습대책위 원로들에게 달려들듯이 항의했다고 한다.

이 때 김 신부는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탱크받이가 되겠다. 죽어도 우리가 먼저 죽겠다. 협상이 잘 되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끝까지 항쟁해야 한다. 도청을 사수하라"며 젊은이들을 격려했다.

김 신부는 수습대책위원들과 함께 탱크 앞을 가로 막아 섰고, 그 때 이 장면을 본 외신기자들은 '죽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했다고 한다.

이후 수습대책위와 계엄군은 협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신부는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게 무슨 군인이냐, 방송에서 폭도라는 말을 빼라. 시민들은 군인들을 보면 인민군보다 나쁘게 생각한다. 군인은 못 믿으니 경찰을 보내라"고 주장했다.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자, 김 신부는 광주를 탈출해 서울행을 감행한다.

80년 당시 11차례 검문 피해 서울행

이국적 외모…외국신부 행세 화 면해

"죽음에서 나만 빠져 나가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광주의 소식을 반드시 서울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탈출을 했지요."

김 신부는 당시 가톨릭 신자이자 모 경제신문 기자였던 김요셉과 함께 11차례의 검문을 어렵게 피해가면 서울에 도착한다. 탈출 중 전북 고창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군이 진압됐다'는 방송을 듣고, 한편으론 분노에 한편으론 함께하지 못한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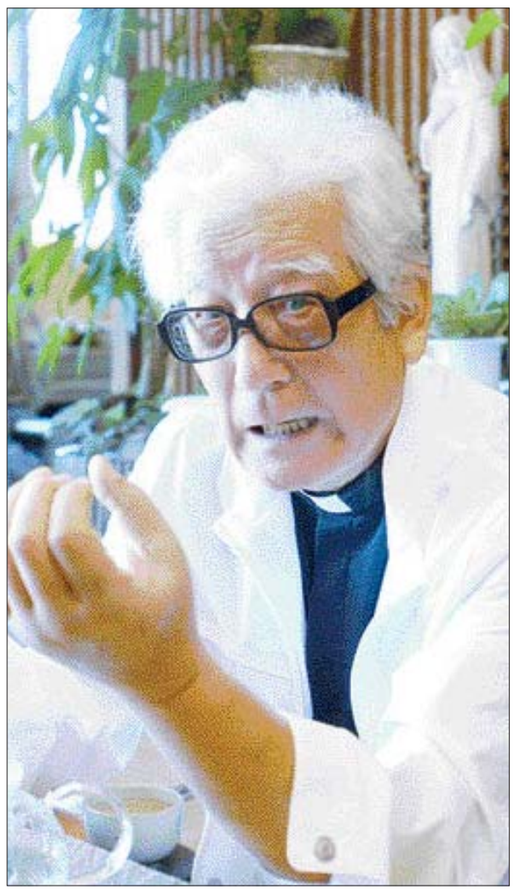
우여 곡절 끝에 명동성당에 도착한 그는 김수환 추기경에게 광주 상황을 상세히 보고 한다.

'분노 보다 슬픔'이란 제목으로 쓴 광주 상황 보고서를 복사해 전국 성당에 복사해 돌렸다. 또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1시간 짜리 테이프도 함께 배포했다.

명동성당에 며칠간 머물렀던 그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된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보고서를 전국 성당에 배포한 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 보고서에 들어있은 한줄의 내용 때문에 당시 수습위원이었던 조비오 신부가 큰 고초를 겪었다며 조 신부에게 미안한 감을 감추지 못했다.



약 력

- ▲1934년 전북 신태인 출생
- ▲목포고 졸업
- ▲서울가톨릭대학 졸업(광주교구 소속 신학생)
- ▲나주성당 보좌신부, 담양성당 주임신부
- ▲1980년 5월 남동성당 주임신부·5·18 시민수습 대책위원회 대변인

보고서에는 도청앞 분수대에서 조비오 신부가 "만약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계엄군을 모두 쏴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한 대목과 이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김 신부는 당시 시민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적은 대목이었지만 이 내용 때문에 조비오 신부는 계엄군에게 모진 고초를 당한 것이다. 김 신부는 본의 아니게 조 신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가 됐다며 다시 한번 미안함을 표했다.

또한 80년 당시 무안성당 주임신부로 수습위 활동을 했던 남재희 신부에 대한 얘기도 들려줬다.

남재희 신부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국군통합병원에서 총기를 수습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 신부가 어깨에 총을 맨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모습이 계엄군의 사진에 찍힌 것이다. 이 사진 때문에 남 신부는 계엄군에 의해 신부가 군인들을 향해 총을 쏜 것이 아니냐며 고초를 당했다고 한다.

남동성당이 광주 5·18사적지로 지정된 뒤, 사적지 표지석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김성용 신부 〈왼쪽에서 세번째〉.

김성용 신부는 광주교도소 수감 시절, 같이 있던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줬는데 누구도 밥 한 그릇 안 산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교도소에서 전두환씨를 광개환 대통령으로 불렀다고 한다. 광은 한자 미칠 광(狂)에서 따왔고 개는 우리말의 개, 환 자는 전씨의 이름 끝자를 그대로 붙인 것이다. 또 대통령의 大자에 점을 하나 찍어 犬통령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풍자적이고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 같이 수감됐던 인사들을 즐겁게 해줬다고 자랑한다.

암흑시대 '광주 참상' 전국에 알려

사제 은퇴 후 전통의학 공부 몰두

김 신부는 요즘 일주일에 2~3차례 광주를 찾는다. 침술과 뜸, 한의학 등 전통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다.

정년한 신부로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길은 하느님이 주신 몸을 죽을 때까지 청결하게 보전하다 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결국 건강하고 깨끗하게 죽는 것이 하느님이 뜻이고, 이를 위해 직접 건강을 살피기 위한 의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신부는 인터뷰가 끝나자 다음에 올 때는 꼭 가족들과 함께 와 황토방에서 하루 밤 묵고 가라며 배웅해줬다. 날마다 방문객이 있으니까 올 때는 항상 며칠 전에 전화를 주라는 당부 말도 곁들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경양호

옛 전라도 곡창지대의 '젖줄'

신안동 태봉산 헐어 완전 매립

전라도 황금 들판에서 추수가 마무리되고 있다. 수리의 힘으로 얻은 결실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영산강유역에서는 광주 경양방죽과 나주 소소리방죽(牛拾堤)이 '곡창(穀倉)'을 이룬 공로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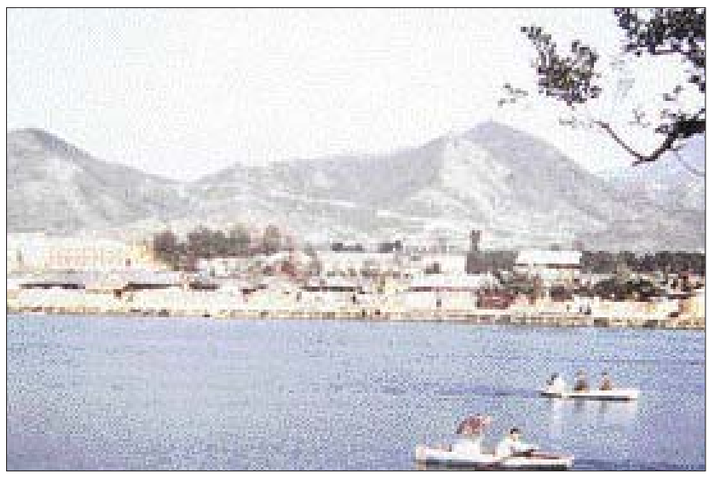
경양방죽(景陽堤·경양제)은 옛 광주시청이 자리했던 계림동 505번지 일대에 있었고, 경호(鏡湖), 금교제(金橋堤), 서방지(瑞坊池)로도 불렸다. 18세기 여지도서를 보면 광주 제언(堤偃) 42개 중 첫 번째로 둘레 5천560자, 수심 1자5치로 기록돼 있다.

1872년 전라좌도 광주지도에는 金橋防築(금교방축)과 함께 高麗王子胎封(고려왕자태봉), 大野(대야)가 표기돼 있다.

1912년 지적원도에는 서방면 풍향리 574번지, 국가소유의 지(池)로 분류돼 있다. 수원은 꼬무메골과 광주천이었다.

광주읍성에서 경양찰방역으로 이어지는 1㎞ 둑길은 담양 관방제림처럼 팽나무, 귀목, 왕버들이 울창했다고 한다. 현재 대인광장에서 서암로 가는 길(시청서길~물들1길)로 동구 계림동과 북구 중흥동의 경계다.

경양호는 1937년 택지조성을 위해 4만5천531평이 매립되고, 1968년에는 나머지마저 사라졌다. 이듬해 김홍삼은 '경양방죽의 역사'를 펴냈다. 2005년 김희태 선생은 경양호 축조자 김방(金倣), 축조시기, 시(詩)를 발표했다.



이경모씨가 1940년대에 촬영한 경양방죽 전경.

김방은 광산김씨로 고려조 예조판서 김승로(承魯, ?~1419)와 경주이씨의 아들로 광주 덕림에서 태어났다. 김제군사 때 벽골제 보수공사로 큰 공을 세웠고, 낙안(현 보성 벌교 척령리)으로 퇴거했다. 축조시기는 1420~1443년으로 보이고, 조희일(1575~1638)·양경우(1568~?)·정약용의 시가 있다.

태봉산은 광주역 서편 신안동 121번지 일대 무등로에 있었다. 1916년 지적원도와 토지대장에 따르면 신안리 169번지, 임야 2천544평, 국유지였다. 해발고도 52.9m의 똑뫼는 북동쪽 중흥리 경계 벼랑 밑으로 개울이 흘렀다.

1928년 발견된 돌항아리에서 지석(誌石)이 나왔고, 태(胎)의 주인공이 1624년 9월 태어난 인조의 아들이고, 이듬해 3월 태를 묻었다고 밝혀졌다. 1933년 광주군사에는 만두산(饅頭산)으로 광주공립보통학교림이고, 정상에 1627년 세운 석비가 있다고 적혀 있다.

구슬을 절반 파묻은 모습 같다 하여 광주의 '여의주'라 칭했던 태봉산은 1967년 헐려 경양호로 들어갔다. 광복 직후 이경모가 원색으로 담은 뱃놀이하는 경양호 모습과 전남대 용주마을 뒷등에서 보인 태봉산 원경 사진이 그립다. 두 곳은 광주를 상징하는 생활·문화교류 현장이었고, 풍수형국 상 비보(裨補)였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